

「아담·스미스」의 經濟學上的 貢獻과 그 歷史的 遺産

丁 海 東
(中央大學校 政經大學·教授)

차 례

- I. 「스미스」의 經濟學上的 貢獻
- II. 「스미스」 經濟學의 歷史的 遺産

I. 「스미스」의 經濟學上的 貢獻

近代國家가 成立하게 되자 對內的으로는 主權者의 奢侈와 治安維持를 위하여 對外的으로는 外國과의 戰爭을 위하여 消費하는 金額은 대단히 巨額에 이르렀다. 狩獵民族이나 牧畜民族에 있어서는 日常의 生業과 戰術 間에 大差가 없었고 또한 從軍으로 生業이 妨害되는 것도 없으므로 戰士인 民兵(militia)은 社會의 다른 職業에서 分離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維持費는 必要가 없었다. 農民의 일도 戰場의 일에 가까운 것이 많지만 直接 戰術을 鍊磨하는 餘暇는 前 段階보다 적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農業은 多少 定住의으로 全員이 農場을 버리고 出征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서 農業社會에서는 生業과 軍事가 相當히 明確히 分離되었다. 그러나 戰鬥能力者가 모두 出征하여도 殘留하는 老幼婦女만으로도 農作物을 돌 볼 수가 있었고, 특히 戰爭이 播種과 收穫 間에 이루어지면 農業勞動의 不足은 없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常備軍(standing army)보다 規律과 訓練이 不足한 民兵은 역시 自己 乃至 家族의 勞動의 生産物로 維持되므로 別로 軍事費라는 것은 必要가 없었다. 그러나 社會 狀態가 前進하면 「製造業의 進歩와 戰術의 改良」이라는 두 原因으로 出征者가 스스로 費用을 調達할 수 없게 되었다. 單純한 農業段階에 있어서는 農民이 出征하여도 生産에는 直接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大匠工이나 木工이 出征하면 그들의 일은 停止되므로 그들의 出征 中の 生活費는 他們 以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支給되어야 하였다. 뿐만 아니라 火器의 發明 以後에는 戰爭의 方式이 中世의 時代와 相違하게 되고 勝敗를 決定하는 要因은 民兵보다 規律과 訓練이 優越한 常備軍의 勇敢性에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武器의 精銳에 의하는 바가 많고 이러한 原因으로 政府의 經費가 一層 膨脹되었다. 이와 같이 國防이 多額의 經費를 必要로 하는 것은 이로써 富裕한 文明國이 貧困한 野蠻國의 攻擊에 대해서 苦痛을 받지 않으므로 文明의 持續 및 發展을 위하여 有利하였다. 이리하여 國有財産 收入이 近代 國家의 莫大한 支出을 支辨할 수 없게 되면 남은 財源은 租稅이었다. 그런데 租稅은 國民의 주머니에서 貨幣를 徵收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情은 社會經濟의으로 보아서 貨幣가 어느만큼 必要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貨幣는 「國家의 神經」이고 「流通의 大車輪」이며 「戰爭의 筋力」이었다. 그리하여 如何히 이것을 充實化하는가가 近代國家의 政策으로 되었다. 이것이 所謂 重商主義였다. 즉 經濟政策은 租稅 徵收의 目的에서 出發한 것으로, 經濟學은 政府의 租稅政策에 起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政府의 存在는 어떠한 時代에도 民衆의 生活에 대해서 必要 不可缺한 것이다. 따라

서 이를 存續시키기 위하여서 必要한 租稅는 結局 民衆의 生活에 無意味하게 使用될 수 없다. 그러나 民衆의 生活이 主이고 政府가 從이다. 從인 政府의 必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一切의 政策이 案出되면 主인 民衆의 生活과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十九世紀의 實情이었다. 이리하여 經濟政策에서 租稅 徵收의 目的을 清算하고 經濟學에서 政治的色彩를 除去하여 이를 社會的인 것으로 할 必要가 있었다. 이것이 즉 「스미스」가 하고자 하는 바이었다.

그가 어느만큼 民衆의 生活 그 自體를 重要視하였는가는 『國富論』에서의 二, 三의 引用例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例컨대 第一編 第八章에서 「어떠한 社會라 할지라도 그 成員의 大多數가 貧困하고 悲慘한 社會는 決코 繁榮하고 幸福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國民全體에게 食·衣·住를 供給하는 사람들이 自己들도 相當히 먹고 입고 살만한 만큼의 몫을 自己들의 勞動生産物에 대하여서 가진다는 것은 公正 以外の 아무 것도 아니다」(Smith, Wealth of Nations., ed. by Edwin Cannan, Vol. I, p. 80) 또는 第四編 第八章에서 「消費가 一切의 生産의 唯一한 目標이며 目的이다. 그러므로 生産者의 利益은 다만 그것이 消費者의 利益을 增進하는데 必要한 範圍에 있어서만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 公理는 너무나 自明하고 證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重商主義에 있어서는 消費者의 利益은 거의 不斷히 生産者의 그것을 위해서 犧牲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 主義는 消費가 아니라 生産을 모든 產業과 商業의 窮極의 目標과 目的으로 看做하고 있는 듯하다」(Smith, Wealth., Vol. p. 159)는 것이 그것이다. 換言하면 消費가 生産의 唯一한 目的이란 「스미스」가 外國市場보다도 國內市場을 特殊階級の 特殊利得보다도 一國의 一般的 利益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意味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그가 消費 즉 生活 自體를 重要視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第四編의 序論에 있어서 「政治家 또는 立法者의 學問의 一部分이라고 생각되는 經濟學은 두 개의 다른 目的을 갖고 있다. 즉 그 하나는 國民에게 豊富한 收入 또는 生活資料를 供給하는 것, 더욱 適切하게 말하면 國民으로 하여금 이러한 收入 또는 生活資料를 스스로 獲得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國家 또는 共同社會에 公共의 職務을 遂行하는데 充分한 收入을 供給하는 것이다. 이 學問은 國民과 主權者의 兩者를 더불어 富裕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Smith, Wealth., Vol. I. p. 395)이라 하고 있다 換言하면 主權者와 國民이 아니라 國民과 主權者를 더불어 富裕하게 한다는 것은 分明히 經濟學으로 하여금 民衆의 生活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優先함을 陳述한 것으로 從來의 政府의 收入策과 같은 것은 從位에 位置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스미스」의 經濟學에 대한 以上과 같은 立場은 普通 自由放任主義라는 名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政府를 首位에 놓고 생각하던 從來의 經濟學으로 하여금 民衆의 生活을 首位에 놓고 政府를 從位에 놓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經濟學 중에서 政治的色彩를 除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스미스」의 第一의 功績이다.

그의 特質은 單純히 複雜한 現象 相互의 關係를 分明히 하였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混沌 속에서 全部를 움직이는 動力을 發見코자 努力한 點에 있다. 그는 一見 統一되지 않고 複雜하게 보이는 經濟 活動의 背後에 있는 源泉을 本來의 自然에 대해서 人間의 自然이라 할 수 있는 人間性(human nature)에 求하고 이를 「母親의 胎內에서부터 墓地에 이르기까지 持續하고 있는 利己心이라 斷定하였다. 從來의 經濟學은 다만 主權者를 위하여 어느 時代 어느 場所에서만 適用되는 經綸의 策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人間의 性質이 이러하다는 것에서 出發한 經濟學은 人間인 이상 時間的(歷史的) 空間的(社會的) 制約에 拘碍되지 않고

歷史發展 段階의 相違나 社會形態의 相違에 超越하여 適用 될 것이다. 이것이 곧 經濟學에 普遍妥當性을 附與한 것으로 普遍妥當性이 科學에 必要 要件이라면 여기에 비로소 經濟學은 科學의 體制를 갖추게 된 것이다. 經濟現象의 說明을 人間의 內心에 求한 點에 있어서 그의 地位는 다만 個人主義 經濟學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個人主義의 與否를 不問하고 모든 學派를 超越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미스」는 自由競爭을 媒介로 하는 「自然價格」의 概念을 導入하였고 經濟社會가 어떻게 維持되고 있는가를 市場機構를 中心으로 社會 全體를 組織的이고도 廣大한 테두리 속에서 體系化하여 經濟의 自律的인 法則性을 發見하고, 이 土臺 위에 確固한 社會秩序를 確立시킨 것으로써 經濟學을 하나의 獨立된 學問으로서 觀察하였다. 뿐만 아니라 重農學派가 農業만을 生産의이라 하였으므로 그 考察과 結論이 스스로 部分的 偏倚의으로 뭍을免할 수 없었는데 대하여, 「스미스」는 原則的으로 모든 産業의 生産性을 認定하고 全般的 不偏의으로 國民經濟를 觀察 記述하고 그 機構를 說明코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經濟學은 비로소 全體에까지 發展하고 그 內容이 科學的으로 規定됨에 이르렀다¹⁾. 以上에서 「스미스」의 二大 不朽의 功績으로서 經濟學 중에서 (1) 政治의 色彩를 除去했고, (2) 經濟의 內容을 科學的으로 規定하였음을 알렸다. 後世의 모든 經濟學者는 이리하여 「스미스」의 偉大함을 讚揚하고 後世의 모든 經濟學派는 그 淵源을 「스미스」에서 發見했던 것이다. 일찌기 1796년에 獨逸의 「크라우스」(Kraus, C. J)教授는 「世界는 아직 『國富論』보다도 重要한 書籍을 알지 못하였다. 新約聖書 以來 이 書籍만큼 人類에 貢獻한 것은 없다」고 하였고²⁾ 「버클」(Buckle, H.T.)도 「이 書籍은 이제까지 出版된 著書 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政治의 原則을 確立한 것에 있어서 單 한사람 만이 이룩한 가장 貴重한 文獻³⁾」이라고 激讚하고 있는 것이다. 實로 한 사람의 學徒가 이룩한 業績으로서 『國富論』만큼 貴重하고 偉大한 文獻은 古來로 그 類例가 적다 할 것이다.

II. 「스미스」經濟學의 歷史的 遺産

「스미스」의 『國富論』이 出版되자 곧 時代의 歡迎을 받아 著者의 生存 중에 五版이 그리고 1799년까지는 이미 十版이 거듭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79년부터 1802년까지에 四種의 翻譯이 나왔다. 『國富論』이 이와 같이 國內外에 聲價를 높인 所以는 첫째로는 그 文章이 明快流暢하고 引用例가 豊富한 데에 있고, 둘째로는 外界의 實際事情에 있는 것이다.

文章의 明快 流暢과 引用例의 豊富에 대해 敷衍하면 다음과 같다.

『國富論』이 出版되었을 때에 「휴」(Hume, D.)은 「많은 珍奇한 事實로 例證되었으므로 公衆의 注意를 끌 것임에 틀림없다⁴⁾」고 評하더니 이는 事實 그대로 되었다. 例컨대 (1) 「디 오미데」(Diomede)의 갑옷은 소 九頭의 價値를 가졌을 따름이었지만 「그라우코스」(Glaucus)의 갑옷은 소 百頭의 價値를 가졌고 「스코틀랜드」의 어느 村落에서는 勞動者가 貨幣 代身으로 옷을 가지고 빵가게나 술집으로 간다(Smith, ibid., p. 25)든가 (2) 4·5名의 幼兒를 가진 젊은 寡婦는 「유우롭」의 中流 또는 下流의 階級에서는 再婚할 機會가 거의 없는 것이지만 北美에서는 一種의 財産을 가지고 있는 者로서 求婚된다(Smith, ibid., p. 72)든가 (3) 「페

1) 舞出長五郎, 經濟學史概要 上卷, 1941. p.212.

2) 河合榮次郎, 社會思想史研究第一卷 p.25. [Rae, J., Life of Adam Smith, 1895. p.360]

3) 前掲書 pp.25~26 (Buckle, H.T.,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1861. (Longman's edition) Vol. I. p.214)

4) 小泉信三, アダムスミス, マルサス, リカドオ. 1937. p.185.

너스·아이러리츠」(Buenos Aryes)에서는 지금부터 4·50年 前에는 英貨 21펜스半이 2·2百頭의 群에서 選擇된 소 한 마리의 普通價格이었다(Smith, ibid., p. 149)든가 (4) 「잉글랜드」에 있어서 珍양물을 着用한 最初의 사람은 「에리저버드」女王으로 그는 그것을 「스페인」大使로부터 膳物로 받았다(Smith, ibid., p. 245)든가 (5) 「그레이트·브리튼」의 「제임스」一世의 結婚寢臺는 主權者에게서 主權者에게로 適合한 膳物인 것으로 그의 王后가 「덴마크」(Denmark)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것은 數年前에 「덤취롤라인」(Duufermline)의 一酒幕의 裝飾으로 되었다(Smith, ibid., p. 329)든가 등등 이러한 興味津津한 얘기가 수두룩 함을 본다. 實로 『國富論』은 專門學者를 위한 著書라기 보다는 모든 階層에 널리 읽힐 著書라 하겠다.

다음 外界의 實際事情에 대하여 보전에 첫째로 美國의 獨立을 들 수 있다. 『國富論』이 出版된 1776년에 美國은 獨立을 宣言하였다. 「스미스」는 植民地 貿易에 利害關係를 갖는 母國의 金權階級이나 地主階級 등의 抵抗 속에서 植民地 放棄論을 主張하였다. 즉 希臘이나 「로마」의 古代 植民地에 있어서는 母國과 植民地와의 關係가 自由스럽고 對等하였고 植民地는 母國에 의해서 自治와 自由가 認定되어진 것으로 英 母國과 英 植民地와의 關係도 이와 같은 關係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그리하여 「스미스」는 植民地를 母國의 利益의 手段으로 하는 잘못을 力說하였고, 美國의 獨立은 事實으로써 植民地가 母國의 犧牲으로 됨을 기꺼워 하지 않음을 立證하였다. 둘째로 美國 獨立後라 할지라도 英國의 海外貿易은 조금도 衰退하지 않았기 때문에 從來와 같은 植民政策의 無用함을 느끼게하고 이러한 事情이 時代를 움직이는 刺戟으로 되었다. 셋째로 當時의 政黨界의 形勢가 「스미스」의 學說을 普及시키는데 便宜가 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윅」(Wig)黨이 오랜동안 政權을 掌握하고 있었을 때 重商主義 政策을 採擇해 온 것이지만 美國獨立으로 挫折을 가져오고 政綱을 變更하여 人心을 새로이 할 必要가 있었으므로, 「스미스」學說에 注意를 기울였다. 그리고 漸次 研究를 깊이 하여 감에 따라서 自由放任의 主張은 「윅」黨 傳來의 自由民權의 思想과 전혀 共通의 思想인 것을 發見하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黨界의 事情 또한 「스미스」思想의 普及에 寄與했던 것이다. 「스미스」의 學說은 英國 下院에서 가끔 引用되었다. 政治家「폭스」(Fox, C.J.)가 1783年 11월에 「그 書籍 속에 富裕하게 되는 唯一한 길은 收入은 支出에 超過하지 않도록 按配하는 것이라고 陳述하고 있다. 이 格言은 一個人에게도 國民에게도 다 같이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適當한 行動의 方針은 適宜한 經濟에 있어서 모든 經費를 節減하고 平和스러운 동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貯蓄을 한다」⁶⁾고 하였다. 宰相 「피트」(Pitt, W.)는 1792年 2月 豫算 演說속에서 資本의 蓄積은 이를 妨害하지 않으면 自發적으로 進行한다는 것을 說明함에 있어서 「이 原理는 簡單 明瞭한 것이기는 하지만……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時代의 어느 一名의 學者(「스미스」)의 著作 以外에 果然 오늘에 이르기까지 完成되고 充分히 說明되어져 있는가 어떤가를 疑心한다」⁷⁾고 한 것 등은 그 例이다. 「피트」는 「스미스」에 따라서 關稅制度의 單純化 및 稅率의 引下를 하여 密輸入을 防止하고 「프랑스」와의 對抗이 英國의 一切의 政策의 傳統이었음에도 不拘하고 對佛 貿易의 制限을 緩和하고, 드디어 1786년에는 最初의 對佛通商條約에 調印하였다. 「와이트브레트」(Whitbead)가 1795년에 下院에 있어서 勞賃 公定制度의 復活을 提議하였을 때에, 「피트」는 「스미스」의 이름을 들고 自由放任이란 이름으로 이 動議에 反對하였다. 더욱이 1800년에는 「노스」卿(Lord North)이 多年의 懸案

5) 高島善哉, アダムスミス, 1968. pp. 123~124.

6) 小泉信三, アダムスミス, マルサス, リカアドオ, 1937. p. 187.

7) 前掲書, p. 188.

이었던 「아이얼랜드」併합을 斷行하였다. 그리고 1846年の 穀物關稅法의 撤廢 및 1860年の 保護關稅의 廢止도 「스미스」의 自由主義, 그 貿易 自由의 運動의 結實인 것이다. 「스미스」의 後繼者로서는 經濟學史의 時代 區劃者라고 할 수 있는 「말사스」, 「리카아도」 및 「밀」 등과 같은 巨星을 列學할 수 있다. 그리고 既述한 바와 같이 政治的 手腕이 古今에 卓越하였던 「피트」와 「노스」가 「스미스」의 學說의 信奉者이었던 것이다.

「말사스」의 人口論은 多方面에서 非難 攻擊을 받고 있지만, 「말사스」가 土地의 生産力에 制限이 있는 것을 指摘한 것은 正當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緩和하고 또는 反對가 있을 수 있음을 豫見할 수 없었던 것 또한 人口의 原則이 「말사스」가 力說한 것처럼 確定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考察하지 않은 것은 失策이고, 또한 人口論의 缺陷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미스」에 의해서 建設된 經濟學은 「리카아도」에 의해서 理論化되었다. 「리카아도」의 明晰한 頭腦와 透徹한 判斷力으로 正統學派는 大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카아도」의 經濟學說의 主力은 分配論에 있었다고 하여도 좋다. 그 以前 「스미스」를 비롯하여 많은 經濟學者가 生産을 그 理論의 中心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는 經濟學 研究를 分配論에 돌려 『經濟學 및 租稅原理』(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의 序文에서 「이 分配을 規制하는 諸 法則을 決定하는 것이 經濟學의 主要 課題인 것이다. 그리하여 「투루고」, 「스튜아트」, 「스미스」, 「세이」, 「시즈몽더」 其他의 著作에 의하여 이 學問이 多大하게 進歩되긴 하였지만, 그들은 地代 利潤 및 勞賃의 自然的 道程에 관하여 매우 不滿足스러운 知能 밖에는 提供하지 못하였던」⁸⁾ 것이라 하였다.

分配論이 「리카아도」의 經濟學의 研究의 中心으로 된 것은 「스미스」에서 「말사스」와 「리카아도」등에 이르는 동안에 產業界에 重要な 變化가 發生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가 『國富論』을 公表한 當時의 英國은 바야흐로 產業革命의 舞臺에 들어서려는 時代이어서, 從來의 小規模의 產業組織이 近代의 工業制度에 轉換하려는 時期이었다. 따라서 「스미스」는 機械를 備置한 工場의 出現과 그것에 隨伴하는 여러 社會的 變革은 아직 充分히 觀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말사스」 및 「리카아도」의 時代는 產業革命의 結果 國富의 增進은 顯著한 것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手工業이나 家內工業은 壓倒되고 工場 內에서는 女子, 少年 勞働者가 酷使되고 成年 男子 職工은 驅逐되든가 혹은 賃金의 壓迫을 받고 人口의 增加에 隨伴하여 物價는 昂騰하고 農業上의 耕作은 優秀한 土地에서 劣惡한 土地로 擴大되고 또한 長期의 「나폴레옹」(Napoléon) 戰爭은 國家의 負擔을 增大하고, 그것은 社會 大多數의 無產階級에 轉嫁되어 大規模의 工業發達과 더불어 富는 少數者의 手中에 掌握되어 貧富의 隔差는 더욱 더욱 顯著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當時에 있어서는 生産된 것이 如何히 分配되는가가 中心 問題이었다.

「스미스」에 의해서 建設된 經濟學은 「말사스」와 「리카아도」에 의해서 擴大되고 「밀」에 이르러 完成되어 正統學派의 經濟學으로 하여금 隆盛의 絕頂에 이르게 하였다. 「밀」의 『經濟原論』(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은 正統學派의 經濟原理의 主要點을 正確히 組織한 것으로 一般에 대한 感化力도 多大하였다. 그의 『經濟原論』은 (1) 生産論, (2) 分配論, (3) 交換論, (4) 社會 進歩가 生産 및 分配에 미치는 影響, (5) 政府의 影響을 다루었다. 「밀」은 그 序言에서 經濟學이 다루는 問題는 富임을 說明하고 富는 交換價値를 갖는 모든 有用한 快適한 것이라 하고 있다.

8) 「리카아도 D.」著, 崔虎鎮譯, 經濟學 및 租稅原理, 1959. p. 5.

「스미스」에 의해서 主張된 經濟思想은 「말사스」와 「리카아도」에 의해서 敷衍되고 「밀」에 의해서 訂正되어 確定的인 地盤을 갖추게 되었지만 「프랑스」와 獨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思想이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正統學派의 巨匠은 「세이」(Say, J.B.)로서 그의 『經濟學要論』(Traité d'économie politique, 1803)은 프랑스에 있어서 「스미스」의 思想 普及에 크게 貢獻하였다. 「세이」의 經濟論 中에서는 市場論이 가장 重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獨逸에 있어서의 正統學派로서는 『孤立國』(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3 Teile 1826~63)의 著者인 「튀넨」(Thünen, J.H.v.)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8世紀부터 19世紀에 걸쳐서 일어난 英國의 產業革命은 다만 英國만의 產業革命이 아니고 世界的인 產業革命으로 擴大되어 갔다. 產業革命의 結果는 既述한 바와 같이 世界의 富를 增加시켰지만 一方에 있어서는 人類가 일찍이 經驗하지 못했던 慘害를 招來하였다. 여러 種類의 製造 機械의 發明, 蒸氣力의 科學的 應用은 封建時代의 產業組織을 打破하여 버리고 複雜한 工場生産이 出現하였다. 이 結果로서 社會에 있어서 貧富의 隔差는 激甚하게 되고 資本主義 經濟組織의 發達은 有產階級과 無產階級을 낳게 하였다. 兩者의 軋轢은 끊임없는 不安과 鬭爭을 일으키고 無產階級은 窮乏에 빠질 따름이었다. 軋轢과 不安의 結果로서 「프랑스」革命은 發生하였지만 그 成果는 有產階級이 차지하는 바가 되고 無產階級은 惠澤을 입는 바가 거의 없었다. 이 階級이 政治 上에서도 經濟上에서도 甚한 壓迫을 받음과 더불어 困窮의 度는 높아갔던 것이다. 여기에 「스미스」以來의 經濟的 活動의 標本으로 되었던 自由放任 또는 私有財産을 前提로 한 經濟組織과 그 思想에 대한 反抗이 일어났다. 즉 正統學派의 學者는 現代의 經濟社會 組織을 認定하고 個人으로서 自由로 活動시킬 것을 主張한 것이지만 自由競爭은 모든 것을 幸福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結果는 반드시 優劣勝敗에 빠지게 되고 經濟社會에 貧富의 隔差를 낳게하고 經濟力이 弱한 者를 悲慘한 地位에 놓게 한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인 環境속에서 所謂 科學的 社會主義者인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즉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學說과 같이 價値의 源泉이 勞動에 있다고 하면, 勞動의 從事者가 勞動의 全結果를 얻어야 하며, 地代가 不勞所得일 뿐만 아니라 利潤도 또한 不勞所得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미스」→「리카아도」→「마르크스」의 線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經濟社會 組織에 있어서는 勞動者가 얻는 바의 것은 全部가 아니고 一小部分에 不過하다. 다른 모든 것은 資本家의 手中에 들어간다. 이는 不公平한 富의 分配이다. 이와같은 結果에 이른 것은 私有財産制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土地, 機械등의 私有를 禁止하여 社會의 公有로 할 것을 力說한다. 그리고 그는 「헤겔」(Hegel, G.W.F) 哲學에 그 根底를 두고 永久的 原理를 否認하여 現代의 資本主義的 社會組織은 歷史的 產物에 不過하며, 永之의 存在性을 갖지 않고 本質에 있어서 崩壞할 것이므로 早晚間에 무너질 것이라고 主張한다.

「리카아도」와 「마르크스」는 「스미스」理論 中에서 生産과 供給의 側面을 重要視한데 대하여, 「말사스」는 「스미스」理論 中에서 消費과 需要의 側面을 重要視하였다. 「스미스」 속에는 이 두 側面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말사스」와 「리카아도」는 더불어 「스미스」에서 誕生한 異腹兄弟이었다. 「리카아도」는 아직 過剩과 恐慌의 可能性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사스」는 生産이 過剩으로 되어 一般的 過剩生産이 일어날 수 있음을 看取하였다. 20世紀로 되어서 「케인즈」가 다룬 것도 「말사스」와 같은 問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미스」→「말사

스」→「케인즈」의 線을 그릴 수 있다. 더욱이 「케인즈」는 「말사스」가 보지 못한 것 즉 資本主義의 一般的 危機와 構造的 失業을 보았다. 그러나 「케인즈」는 「말사스」와 마찬가지로 資本主義 經濟自體의 內在의 矛盾을 資本主義 經濟秩序라는 틀 안에서 克服하여 資本主義의 本質的인 長點을 繼續 維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⁹⁾.

「스미스」는 이리하여 이미 二世紀 以前에 「新約聖書 以來의 貴重 文獻¹⁰⁾인 『國富論』을 통해서 經濟學에서의 政治的 色彩의 除去, 經濟學의 集大成·科學化, 經濟學의 方向 提示등을 훌륭하게 成就하고 있는 것이다.

9) 高島善哉, アダムスミス, 1968. pp. 191~192.

10) 河合榮次郎, 社會思想史研究 第1卷 p.25. [Rae, J., Life of Adam Smith, 1895. p. 360.]

〈Summary〉

Adam Smith's Economic Contribution and Its Historical Inheritance

by

H. D. Chyung
(Chung Ang Univ. Prof.)

As the modern state was formed, a stupendous sum of money was spent for luxury of sovereign or for war with foreign country. If the revenues of national property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enormous expenditures of the modern state, the remaining financial resource was the taxation.

Therefore, it has been the policy of the modern nation how to balance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This is the so-called mercantilism. As the economic policy is established, in principle, for tax collection, the economics may be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the government taxation policy. Thus the economics was considered as a subordin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ast. A. Smith, however, placed the living of the people first and the government next, eliminating political factors from the economics. The physiocrats claimed that only agriculture is productive, an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could not avoid prejudice and partiality. A. Smith observed and described impartially the national economy with the recognition in principle of the productivity of all industries and tried to explain its mechanism. At this time he regulated scientifically the contents of the economics.

It may be his merit that he eliminated political factors from the economics and regulated its contents in scientific manner. "The Wealth of Nations" was greatly reputed in home and abroad because of his fluent, rich style with abundant quotations encouraged by external circumstances at that time. He was the advocate of abandoning the American colonie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me independent in 1776 when "The Wealth of Nations" was published. Even after the independence of America the overseas trade of the Great Britain had not been declined at all. Consequently his claim was proved to be just and proper. A. Smith was quoted often at the Parliament and W. Pitt signed the commercial treaty with France as claimed by A. Smith. D. Ricardo and K. Marx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ide of production and supply in the theory of A. Smith, while T. R. Malthus and J.M. Keynes attached the importance to the side of consumption and demand in his theory. These two sides are included in A. Smith, and therefore D. Ricardo and T.R. Malthus may be regarded as a brother by a different mother of A. Smith.

崔 虎 鎮 著

增 補
訂 正

韓國經濟史

菊版 373面

特製 1.500원

서 울 博 英 社 刊